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5, 성탄절과 정경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의 역사와 문학, 성탄절과 정경에 관한 강의 5강을 진행하고 있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가자. 신약성서 본문 자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지만 우리는 신약성서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았는지, 아니면 신약성서가 성장한 환경을 살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무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에 도움이 된 배경과 환경, 적어도 제작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는 그것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환경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고 옆으로 치워두지 않고, 우리가 신약성경 문서 자체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자료가 꽤 자주 참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화-역사적 환경의 일부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신약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지난 주를 마쳤습니다. 배경을 이해하면 실제로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일부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배경, 환경, 문화, 심지어 전통까지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읽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예로서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 그러나 본문을 다시 보고 때로는 읽는 방법, 그리고 1세기 독자들이 그것을 읽은 방법의 눈을 통해 또는 적어도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방법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보는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 우리의 배경이나 전통 등에 의해 그렇게 채색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그것을 끝내고 우리가 구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관참은.

아버지, 학문적 환경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환경 그 이상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읽는 방식, 아버지의 말씀으로 읽는 방식, 읽기를 통해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는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선택한 방식을 존중하며, 당신이 매우 특정한 역사적 장소, 매우 특정한 종교적, 정치적 환경, 매우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전달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토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참은.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과 주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전통과 이야기를 읽고 듣게 된 방식에 따라 채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텍스트 자체를 보면 이러한 특징 중 특히 환경에 따라 이러한 기능 중 상당수는 서로 다른 답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두 번째 항목인 여관과 여관 주인은 본문을 읽을 때 명백합니다. 여관 주인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더 잘 번역된 그리스어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손님방으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에 가지 않고 밤과 시간의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친족의 집으로 추정되는 손님방에 묵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마리아가 해산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아 그를 낳아 두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구유에 누우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손님 방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미해야 할 모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여행하여 내내 마구간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은 아마도 이 객실에 아주 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쓰는 방에서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유일하게 조용하고 은밀한 곳, 즉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자, 마구간,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소와 양,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있는 이 크고 넓고 넓은 공간을 상상합니다. 마구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마구간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구유에. 아마도 그것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집이 작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벽장 같은 구조이거나 집 옆에 구유와 같은 물건을 보관하는 기댈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이나 동물 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갔던 곳은 아마도 어떤 동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집 뒤에 있는 어떤 정교한 헛간이나 구조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작은 방이나 기댈 곳, 뒤쪽이나 현관에 붙어 있는 작은 마구간이었을 것입니다. 집 옆.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먹이통인 구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더니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owerPoint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사료통이나 사료통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매우 일반적인 유형의 구유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구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께서 바위, 돌이었던 구유에 놓여졌다면, 이것이 예수 탄생의 겸손과 굴욕적인 환경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가축화했으며, 건초가 나오는 죽마 위의 멋진 나무 요람 상자형 물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주 상상하며 아마도 제가 자는 침대만큼 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우셨다면

그것은 이 바위, 이 돌, 구멍이 뚫린 돌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거기에 곡식을 부었을 것입니다. 먹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우리는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언급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다소 정교한 그림을 자주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훨씬 더 굴욕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집 옆에 있는 작은 기댈 곳이라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이고, 만약 예수가 이 돌 위에 누워 있었다면, 이 구멍 난 큰 바위는 그 안에 예수를 두실 곳이 거기밖에 없었더라. 따라서 어쨌든 요점은 우리가 텍스트에 접근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은 무의식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읽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비추어 읽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모두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나쁘지도 않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역사적, 정치적, 기후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는 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고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도전하며 아마도 우리가 텍스트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누구도 완전한 객관성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당신과 내가 편견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필터링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마른 스펀지라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빈 스펀지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성경 본문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읽는 방식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며,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그리고 최초의 인간 저자들이 의도한 방식에 비추어, 우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기 전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약성서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대부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성경 읽기를 비판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신약성경 소개 교과서를 읽으면서 다양한 비평 방법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비평,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자료 비평과 같습니다.

이는 신약성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적 방법이나 비판적 접근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신약성서를 읽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일에 아무 관련도 없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어떤 것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그것이 포함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의심 많은. 의심 많은.

따라서 신약성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 방식은 신약성서에 회의적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훨씬 더 문자 그대로. 그것을 보는 매우 다른 방식.

다른 누군가? 응. 매우 분석적이며, 다른 자료와 소스를 사용하여 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판을 보는 세 가지 매우 다른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비판을 생각할 때 회의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자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접근 방식은 회의적이거나,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훼손하고 문제를 제기하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대한 많은 비판적 접근 방식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또한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과 이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문을 보고 분석하거나 신약성경 본문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비판의 반대는 더 경건하거나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반대는 순진하고, 이유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약성서의 비평가가 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훼손하거나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본문에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 텍스트가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신약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정당성과 이유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텍스트에 가져올 자료와 배경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더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따라서 이 수업에서 우리가 다양한 비판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파괴적이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도출한 결론에 대한 정당성과 이유를 제공합니다. 즉,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는 정당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든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나 비판 중 하나는 대학에서는 신약을 다루기가 쉽거나 성경을 교과서처럼 다루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와 매우 다른 문서, 즉 매우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서 제작된 문서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성경을 교과서처럼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배운 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 예배,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 통합하고, 그것이 다양한 방법과 사물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때때로 성경이 교과서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삶, 즉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환경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문서 자체를 검토하는 데 점점 더 가까워지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일반적인 또 다른 문제, 즉 우리는 어떻게 신약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학급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문서는 어떻게 우리 성경의 일부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도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책들이 정확히 어떻게 신약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실제로 1세기에는 신약성서와 같은 다른 문서도 많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면, 책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와 그 이후에 기록된 수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개의 문서가 어떻게 신약에 포함되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일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발점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은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책이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논리적으로 마지막에 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연대순으로 볼 때 요한복음 중 하나가 아마도 마지막 복음이었을 것이고, 둘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었다고 잠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 교회는 다음 날 신약성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는 신약성서 문서 목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 날에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사실, 우리는 수업 첫날을 다시 보았습니니다. 신약성경은 조금 후에야 우리가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것에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즉 신약성경을 무릎에 들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글에서 언급하고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한 것을 보기 위해 복음서를 많이 읽을 필요는 없으며, 신약성경 저자들은 모두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합니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약성서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책들의 목록만 제공하셨다면 확실히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니다. 대신에 신약성경을 결정하는 과정은 실제로 꽤 길고 길었습니니다.

그리고 대략 4세기가 되어서야 우리는 4세기에 마침내 신약의 전체 목록을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다소 역사적이고 정상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일하셨고 실제로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문서를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뽑아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교회에는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기.

그들은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으며 아마도 다른 성경, 즉 구약성경도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구약성경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구약성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신약성서가 필요했습니까? 추가 저술 그룹에 대한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글쎄, 그 이유는 우리가 첫날에 다시 보았듯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약은 구약이 실패했거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구원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새 언약을 세우실 날을 예상합니다. 옛 언약.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때를 약속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구원자, 곧 다윗의 왕좌에 앉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그는 자신의 백성과 새 계약을 맺고 새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신 것을 증거하는 일련의 기록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옛 언약의 성경도 당연합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래 그의 모이고 회복된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실 때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을 증거하는 기록들도 구약과 함께 성경으로 간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전.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단순한 부록도 아니고 일종의 추가도 아니고 사실상 구약성경의 절정이자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다루신 하나님의 옛 언약을 증거하는 글들의 집합이며, 이제는 새 언약의 시작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

그것을 증언하는 문서들도 권위 있는 경전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정경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당신의 교과서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캐논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갈대를 의미하므로 우리는 전쟁의 도구, 캐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갈대를 의미했습니다. 그 갈대는 사물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고, 갈대의 특정 부분은 측정 단위로서 척도처럼 기능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 정경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수준의 저술물 모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정경을 언급할 때, 우리는 권위 있는 저작물의 모음, 즉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측정하거나 충족한 저작물의 모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권위 있는 성경의 역할을 하는 일련의 저작물인 신약성경의 정경이 의미하는 전부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최근에 이 견해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부활하고 있으며 얼마 전 다빈치 코드의 제작과 함께 매우 인기 있는 표현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읽었으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시대를 지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몇 년 전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를 썼을 때 그것은 실제로 일부 신약성서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대중화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훨씬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2~3세기 동안 기독교라는 산하에는 다양한 문서와 다양한 종교적 관점이 존재했지만 그 어느 것도 옳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경쟁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책을 읽을지, 모두가 동의할지, 다빈치의 표현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허구의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책이지만 그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인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한 것은 얼마 후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으로 간주할 문서가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것은 일종의 아래로 휩쓸려갔습니다. 깔개. 그리고 그것은 처음 3, 2, 3세기 동안

기독교가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경쟁적인 관점이었다는 공통 개념에 대한 상당히 대중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으로 간주되는 저술물은 한 그룹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글이 있었고,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승자가 승리한 것은 얼마 후였습니다. 승자는 기독교의 모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증거 중 일부를 살펴보면,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 날 정경, 잘 정리된 기록 목록을 무릎에 갖고 깨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가 성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서인 신약성서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거의 300년이 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나중에야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신약성경 문서 중 하나인 베드로후서의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아마도 바울의 생애 이후에 쓴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와 같이 지금 순교하여 죽임을 당하였을지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 위안이 되네요. 피터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마도 내가 영성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내용을 썼다고 말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 말씀처럼 그것을 왜곡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 흥미로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미 베드로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편지의 날짜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1세기가 끝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으며 요한계시록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이미 유포되고 있는 일련의 바울의 편지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 모음집의 규모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독자인 베드로와 적어도 그의 독자들은 바울이 이미 쓴 일련의 편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래 전, 1세기가 끝나기 전, 20년, 30년, 40년쯤 전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 성경을 다른 성경과 동일시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성서나 저서라는 단어는 거의 일종의 기술적인 용어가 되었고, 정확히는 아니고 구약성경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 편지들을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구약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약과 함께 새로운 정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구약과 함께 취급될 수 있는 바울의 글과 서신 그룹이 이미 등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비록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라고 부를 저작물 그룹의 대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 힌트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중 일부에는 작가 중 일부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간주될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예는 22장과 18절과 19절로 끝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자는 끝으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책이 아니라 신약 전체가 아닙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실 터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더하고 빼는 말씀이고,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신명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요한아, 그 말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가감하면 저주도 있고, 지키면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제 John은 자신의 문서에 동일한 언어를 적용합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구약성경과 같은 수준의 글을 쓰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1세기의 어느 누구도 성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세기가 지난 후까지 일종의 무효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작가들은 구약성서의 비유를 따라 무언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편지는 적어도 문서나 저술의 수에 있어서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의 문서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그 책을 접하게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교회에게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영적인 은사, 특히 방언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어떻게 영적인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7절 이하에서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은사를 주는 것에 대한 그분의 지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성경을 암시하긴 하지만 결코 인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는 14장의 앞부분에서 한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단지 그 자신의 지시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을 끝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하거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식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자신의 지시를 주님의 명령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든 계시인지, 아니면 말하지 않는지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지시가 권위가 있으며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바울과 다른 저자들, 전부는 아니고 그들 중 적어도 몇몇, 신약성서의 저자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자신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이상의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대변인 중 한 사람의 권위 또는 구약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중단점은 신약성서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정경 의식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권위 있는 성경으로 기능할 일단의 저술물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매우 광범위한 붓놀림을 그리는 다음 중지 지점은 Marcion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마르시온(Marcion)은 신약성서가 기록된 지 몇 백 년 후에 등장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Marcion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새 언약의 계시를 증거하는 성경으로 우리는 어떤 문서를 고려할 것인가? 어떤 문서가 이에 대한 권위 있는 증인으로 간주됩니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Marcion을 믿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심판과 율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마르시온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서와 너무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모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은 구약성서와 너무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매우 제한된 정경이나 신약성서 저술 모음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누가와 바울의 편지를 매우 축약하고 개정한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구약성서와 너무 흡사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Marcion은 매우 제한된 카논을 생각해 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이런 일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문서를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간주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참고 자료, 적어도 현존하는 참고 자료는 이것이 누군가가 이것을 생각한 최초의 참고 자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27권의 책을 증언하는 최초의 기록된 텍스트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교부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2세기, 3세기, 4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인 교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저술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영어 번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부 중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매년 교회에 설교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지도자였는데, 교회라 함은 단지 한 건물에서 열리는 한 교회 모임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널리 퍼져 있는 교회가 부활절 편지로 교회에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절 편지 중 하나, 서기 367년에 쓴 부활절 편지 중 하나, 그의 편지 중 하나는 그가 신약으로 간주할 책들, 또는 교회가... 단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가 주로 신약성서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아타나시우스가 또 우리가 신약성서의 책 이름을 언급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이것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4복음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의 명령은 바울의 14서한 편지와 조금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거기에 히브리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묵시록 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신약으로 받아들이는 27권의 첫 번째로 입증된 목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서면 형식입니다. 저는 나중에 약 30년 후에 초대교회 공의회 중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다양한 거짓 가르침과 다양한 문제와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교회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불리는 것 중 하나에서 카르타고 공의회는 또한 아타나시우스의 신약 목록과 동일한 27권의 책을 나열합니다. 따라서 4세기 말에는 어떤 책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증거하는 권위 있는 본문 그룹인 신약성경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의 계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 날 교회가 깨어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논쟁하고 해결하고 채찍질하는 매우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목록을 그들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다면, 그분은 교회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간주할 문서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 매우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귀하의 강의 계획서에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질문은 '그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인가' 입니다. 내 말은, 교회는 어떤 문서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위해 분명히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가?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슬라이드에는 PowerPoint 슬라이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피너츠 만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교회가 체크리스트처럼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태를 데리고 와서 리스트를 내려갔습니다.

네,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크를 데려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한두개 빠졌으니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문서 더미를 가지고 있었고 테스트를 통과한 문서가 나왔고 다른 문서는 버려졌습니다. 그것은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서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러한 문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였거나 적어도 특정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 명이 있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문서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간주되려면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세 가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성이었습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문서였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복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미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이 있기 오래 전에 사도들이 전수하고 전파하고 가르친 복음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마도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고 이에 부합하는 문서는 성경으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수용입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 문서가 성경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종파나 집단에서 나오거나 오직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는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가치 있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문서는 예수의 사도 중 한 사람이나 그들의 동료 중 한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쓴 책은 신약성경에 들어갈 좋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는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의 가까운 동료였거나 베드로의 통역이었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쓴 책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의 동료로 알려진 누가. 그래서 신약성서의 대부분의 문서는 사도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주 초기에 그리스도 안의 이 새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일련의 기록물에 대한 의식이 교회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구약이 기대했던 이 새 언약 관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증거하는 일련의 문서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최종적인 형태가 나타나기까지 거의 300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성경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한 문서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과정과 역사의 메커니즘을 통해 다시 한 번 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혹은 우리가 신약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의 정경이라고 부르면, 일종의 단일체 블록으로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신약성서를 기본적으로 서로 매우 유사한 동질적인 문서 그룹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읽고, 그 안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변화나 차이도 보지 않고 평탄하게 읽습니다.

동시에, 독특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간증이자 교회에 대한 간증, 즉 신약성서의 정경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보존하려는 교회의 소망은 우리가 신약성서의 정경을 주장하더라도 성서는 하나의 책인 동시에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진 다양한 주제와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유형으로 구성된 다양한 텍스트입니다. 나는 항상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21세기에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문학적이든 다른 방식이든, 그가 사용하실 의미는 무엇인지,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1세기에 하나님은 1세기의 정상적, 일반적, 표준적인 문학 장르나 문학 유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장르란, 프랑스어를 말하거나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경우 장르는 유형이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문학 비평과 성서 연구에서 문학의 유형, 즉 편지나 소설, 시 등과 같이 인식 가능한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그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문학에 자주 적용되어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사용합니다. 신약성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다양한 문학적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보고 자동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땅콩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면 문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장르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읽는 방식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무언가를 읽는 방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역사 다큐멘터리나 스포츠, 신문의 스포츠 섹션 등이 아닌 만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멈춰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것은 이런 이유로 만화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에 뛰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 코드와 이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들의 연속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 즉, 이것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캐리커처이거나 그려진 그림입니다. 또, 물리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기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만화에서는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리커처입니다. 움직임을 묘사하는 일련의 프레임이 있다는 사실은 만화를 다루고 있다는 표시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땅콩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 외에도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만화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응, 거품이 생겼어. 이것이 바로 프레임 상단에 있는 말풍선을 통해 말이나 생각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것이 만화라는 특정 문학적 장르에 속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학 장르를 자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독자라면 이해하고 익숙했을 장르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낯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편지와 같이 우리 시대와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편지를 읽고 쓰지만, 1세기의 편지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합되었거나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능했거나 다른 부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역사적,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문학적 맥락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어떤 종류의 문학적 장르를 활용했는지 이해하십시오. 그 장르는 당시에 흔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문학적 장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더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사용하며 그것이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한계시록이 전달된 문학적 장르와 최초의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오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문학적 장르, 즉 기본적인 문학적 유형의 경우 첫 번째는 우리 대부분에게 상당히 친숙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쓰는 방식과 다소 다른 관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사도행전과 복음서가 필연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둘 다 문학적 유형의 서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요리법이나 과학적인 설명이나 실험의 문서로, 서신이나 직접적인 설명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이야기라는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작가로서 읽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소설이 어떻게,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와 이야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해하면 복음서를 더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작가들은 이야기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글을 쓰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중에 왜 저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고 포함시켰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지금쯤 당신은 이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를 제외하면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만 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로 그의 성인 사역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단 두 명만이 그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의미로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적일 수 있는 1세기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의도, 신학적 의도, 그리스도에 관해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 그들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건들만 풀어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그들은 예수의 생애, 탄생,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에 관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전달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이유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의 큰 복음을 융합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교회 초기에 그런 일을 시도했습니다.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상호보완적이지만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느 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가 내러티브, 즉 1세기 전기의 표준에 따라 쓰여진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서는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에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나 이야기라는 매체를 통해 가르칩니다.

이야기에 더 익숙해지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영화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요점을 전달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소설 읽기에 더 능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대화 등을 통해서요.

다시 말하지만, 내러티브의 작가들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이해함으로써 대화, 반복, 작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 등을 통해 내러티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여기에서 마이클 J. 폭스(Michael J. Fox)의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 영화 25주년 기념 행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백투더퓨처1을 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한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요 아이디어는 몇 번 반복되고 대화에서도 몇 번 반복되며 특히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머리만 사용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영화의 주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구는 실제로 몇 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런 일이 몇 번 발생합니다.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의사가 쓰러져 머리에 반창고를 착용하고 있을 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Marty McFly가 DeLorean을 타고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고, 차를 가져와야 하고, 시동을 걸어 특정 지점에서 출발선을 떠나야 했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속 88마일의 속도로 달리면 그는 자신의 일상,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 차가 멈춥니다. 그의 차에는 그가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알람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면서 차도 멈춥니다. 그가 차에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아는 사람 있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래서 다양한 장면의 반복과 결정적인 대사를 통해 머리를 쓰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됐어요. 이것이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반복과 같은 것들이 전기,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의 주요 요점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세 가지 다른 문학 주제가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와 문학, 성탄절과 정경에 관한 강의 5강을 진행하고 있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